

# 순천시 '100세 고령 친화도시' 구현 나선다

### 하반기 '아버지 요리 교실'...내년 선행리에 '북부 노인복지타운' 완공 AI반려로봇 홀몸 250가구에 보급...80세 이상에 목욕·이미용 이용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순천시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노인복지 기반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나선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5만18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한다.

순천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12월까지의 서면 선행리에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타운'을 완공할 방침이다.

노인복지타운은 치매 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해 조성되는 시설이다. 이 공간은 치매노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교육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좋은 건강 아버지 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이 수업은 은퇴 세대 남성들이 스스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올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80세 이상 순천시민 1만3762명은 한 해 12만원 상당 '건강바우처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어르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 마련한 이 카드는 지역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쓸 수 있다.

순천형 AI반려로봇은 지역 고령 1인 가구 250곳에 보급했다. '순천형 어르신 돌봄'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고령 1인 가구를 실시간 돌보기 위해 마련했다.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생활·안전 등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순천시 '좋은 건강 아버지 요리 교실'에 참여한 65세 이상 남성들이 요리 실습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고령자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강좌도 진행되고 있다.

용당·동부·남부 등 노인복지관 3곳은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여학, 정보화, 건강 관리, 전통문화, 춤 등 다양한 분야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동요 부르고 물놀이 하고 순천 철도마을축제 연다 시, 20일 순천역 인근

철도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제7회 순천철도마을축제 및 제5회 순천철도 어린이동요제가 20일 순천역 인근에서 펼쳐진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철도마을축제는 방문객들이 철도마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풍선아트, 공예 체험과 먹거리 부스가 운영된다.

철도마을박물관과 철도문화체험관에서는 철도관사마을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과 함께 모형 기차 만들기 체험이 이뤄진다.

또 조곡동행정복지센터 광장 행사장에서는 물놀이 에어바운스와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 동요제가 주무대에서 열린다.

올해는 총 13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벌써부터 군침'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10월 11일 개막

### 3일간 공연·체험 행사 다채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확정됐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축제 시기 선정과 축제 추진 방향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축제추진위원회는 10월 '광양 K-POP 페스티벌', '제30회 광양시민의 날',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교통 혼

잡 최소화, 관광객 분산,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일정을 정했다.

앞서 축제추진위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선방안 공모'를 통해 우수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제안을 축제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축제 추진계획에 따라 대행업체 공모 및 선정 등을 끝내고 오는 8월 10일까지 축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축제 참여업체 선정과 9월 초 안전, 교통, 환경, 위생 대책 수립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이끌 계획이다.

우승배 축제위원장은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광양시 대표 축제이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축제"라며 "올해 축제는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더하고, 앞선 축제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관광객 만족 및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0회째를 맞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광양불고기를 주축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이어지며 매년 1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LG화학 여수공장과 여수YMCA 관계자들이 하천 수질 정화에 효과적인 'EM효공'을 만들고 있다. <LG화학 제공>

## 여수 하천 정화 위해 '날아라 희망공'

### LG화학 여수공장, 27일 선소 유적지 일대 'EM효공' 투척

LG화학 여수공장은 여수YMCA와 함께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날아라 희망공(EM박테리아 효공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EM효공은 유용한 미생물군 발효액과 황토를 반죽해 발효시킨 공이다. 강이나 하천에 투입하면 수질이 정화되고 녹조 및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지역 청소년 40명이 참여해 직접 만든 효공 1000개는 오는 27일 여수 선소 유적지 해안 산책로 인근에 투척될 예정이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지역사회 상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군청에 북카페 생겼어요

### 군, 포토존·소통 광장 등 민원인 휴식 공간 마련

고흥군이 군청사를 찾는 주민과 내방객을 위해 북카페 등 편의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고흥군은 딱딱하고 사무적인 광공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민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청사를 찾아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를 북카페, 포토존, 소통 광장 등을 마련했다.

고흥군청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북카페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교양, 소설, 시집 등 10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며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1층 종합민원실 SPACE 포토존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을 방문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분청사기 전시 감상과 물고기와 수경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시원한 생수도 제공받을 수 있어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다.



고흥군청 내 마련된 북카페.

군청사 2층부터 6층까지 각층에는 복도와 테라스 등 6곳의 공간을 조성해 주민 소통 공간과 민원 상담,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다.

군청사 앞 잔디마당 4800㎡은 공연장과 관람석을 갖춘 주민 광장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에서 6월 고흥아트비캉스날 행사가 열렸으며, 오는 11월까지 매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열린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